

부지 중에 하는 전도

센터빌로 나와 산 지 일년이 되어 갑니다. 이사 온 이후로 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한인 상가들이 가까이에 많기에 생활이 훨씬 편리해 졌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지역 식당이나 카페에서 한인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 내용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카페는 피하는 편이어서 그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아들은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도 친구들과 만날 때 이 지역 상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이나 카페 혹은 마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옆에 사람이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옆에 사람에게 다 들릴 정도입니다. 서로에게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교회 이야기, 교인 이야기 그리고 목사 이야기를 거침 없이 쏟아 놓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은혜로우면 그래도 낫겠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이 지역 한인들은 다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애."

맥클린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아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식당 종업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서 교인 냄새가 난다 싶으면 종업원들이 서로에게 미룬다고 합니다. 자신들끼리는 "집사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 하면서 종업원들을 종처럼 대하고 음식에 대해 까다롭게 굴며 팁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대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가?" 성경 대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은 "새 술"(행 2:13)에 취한 사람들이니 더 너그럽고 더 후해야 하는데, 뭔가 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이 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만 노력하는 것으로는 턱도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로부터든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 장소에 모였을 때 이렇게 해 보십시오.

- 공공장소에 모였을 때 목소리를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여 말합니다.
-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각자 기도를 합니다.
- 교회, 교인 혹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 종업원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팁을 넉넉하게 놓습니다.
- 헤어질 때는 자리를 잘 정돈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신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더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라도 예수의 향기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지 중에 하는 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 시간

“개인기도시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2017년 7월 16일 주일설교
“사랑은 짐이다”(Love Is a Burden)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통 53)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0분)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말씀나눔	-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2. 그동안의 교회 생활 중에 당신에게 가장 큰 시험 거리는 무엇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3.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까? 4. 선한 일 즉 사랑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기도	1.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2.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통 278)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찾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 기도에 몰입할 만한 자리를 찾습니다. 집 혹은 직장에서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처음 시작하는 분은 15분으로 시작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늘립니다. 목표는 '하루 한 시간'입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귄**을 즐깁니다.
- 찬송 부르기, 경건서 읽기, 차 마시기, 찬양 듣기, 성경 읽기, 일기쓰기, 말로 기도하기, 침묵으로 기도하기, 중보 기도하기, 주기도 드리기, 사도신경 고백하기 등.
-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 순서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매일 같은 순서로 하지 마십시오. 그 때 그 때의 영적 기상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 시간을 채우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사귄을 즐기십시오.
- '하루 한 시간'의 개인 기도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1.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빌립보서, 골로세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Centreville UMC의 Vacation Bible School 준비로 인해 ROC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3.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열흘간의 활동을 마치고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지원해 주신 가족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단기선교팀 Reunion Dinner를 7월 23일(주일) 오후 5시에 목사관에서 가집니다. 참여자와 가족 모두를 초청합니다.
4. 오늘 예배 후 3시 30분부터 209호실에서 전도부(팀장: 조상훈)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부원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정기임원회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임시임원회가 7월 24일(월) 오후 7시 30분에 213-215호실에서 모입니다. 안건은 9월 10일에 있을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 준비입니다.
7. 여선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식료품(도토리묵 가루, 커트 미역, 완도 다시마, 갯 녹두, 천연꿀 등)을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적립 후 선교 후원, 교회 학교 및 각 사역부의 행사 후원에 사용됩니다.
8. Centreville UMC에서는 Back 2 School Backpack Drive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 교회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쓸만한데 안 쓰는 백팩이 있으면 깨끗이 손질하여 도네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것이므로 속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큰 백팩이어야 합니다. 새 것도 환영합니다. 8월 6일까지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있는 도네이션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 담임목사 동정 및 심방
 - 7월 18일(화) 상담
 - 7월 19일(수) 장호범 심방
 - 7월 20일(목) 신재혁/신정란 심방
 - 7월 14일(금) KBS 성경공부 특강
 - 7월 22일(토) 기도학교(3)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도미니칸 리퍼블릭(전구 선교사), 아이티(김은숙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기도학교를 위해

주일 예배

한어권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20분/208호

Youth & EM
오후 2시/ROC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213-215호

새벽 기도회 및 중보 기도회

(토)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찬양 새벽 예배

(매달 마지막 토) 오전 6시 / 본당

7월 성경일독 진도

17일 (월)	18일 (화)	19일 (수)	20일 (목)	21 (금)	22일 (토)
빌립보서 1-2장	빌립보서 3-4장	골로세서 1-2장	골로세서 3-4장	데살로니가전서 1-5장	데살로니가후서 1-3장

주일 섬김과 봉사

- 예배: 공효선/오하나/조정호/김인애/김정규/주준호/주규리
- 바나바: 이수진/김희옥/박지나
- 멀타: 이백호/윤석호/김애린/김원희/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빈/김성식
- 도사: 허옥신/김용규/김숙영
- 성찬사: 류수연

제자반

성경일독반(인도: 김영봉 목사)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방학 213-215호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나눔반
(인도: 도현주)
수요일 / 아침 10시 / 방학

기도학교(인도: 김영봉 목사)
토요일/아침 8시/213호

7월 봉사안내

- 안내와 헌금: 윤흥로/문영애
- 7월 23일: 회중기도: 김일명
성경봉독: 박지나
- 주일 친교: (오늘) 주마음속(다음주) 한우리속

(7월 9일)

한어 예배 (KM)	171	주일학교	\$42
영어 예배 (EM)	15	주일헌금	\$190
청소년 예배 (Youth)	16	주정/월정	\$6,570
교회학교 (Sunday School)	12	십일조	\$4,347.85
		선교헌금	\$50
		감사헌금	\$340
		사랑헌금/기타	\$315
합계:	214	합계:	\$11,854.85

2017년 7월 16일 | 성령강림후 여섯 번째 주일

사회: 김영봉 목사	피아노: 이애령	
전주 Prelude	피아노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점화자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 찬송 Hymn of Praise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통 53)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다같이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상민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절 0	김일명
특송 Special Anthem	a Violin Duet	Alex & Ellie Kim
설교 Sermon	“사랑은 짐이다” Love Is a Burden	김영봉 목사
응답의 기도 Prayer of Reflection		다같이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다같이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 결단의 찬양 Hymn of Commitment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통 278) In one fraternal bond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김영봉 목사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